

## 예술 마을 헤이리를 찾아서

최연홍

시인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환경 정책

가 을 청명한 날 파주에 있는 예술마을 헤이리를 찾아 나섰다. 한길사 김언호 사장이 만들어낸 꿈같은 마을이 15만평 야산에 아직도 세워지고 있으니 한번 가보자고 괜찮은 미국 친구가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시인으로, 환경 정책 학자로 한번 가볼만한 마을이라는 것이다.

한국 안에 살고 있으면서 헤이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친구에게 말했다. 파주는 1960년대 초엽 육군 소위로 근무하던 병영이 있었고, 띠엄 띠엄 촌가가 있었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추억을 더듬는 여행은 되리라.

목동에 살고 있는 이서현 시인에게 동행을 요청했고, 우리들은 자유로를 따라 북쪽 마을로 갔다. 어느새 원쪽으로 임진강이 나오고, 습지가 나오고, 철조망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는 높은 아파트들의 군락이 나온다. 일산을 지나고, 파주에 들어선다. 통일동산이 나오면 오른쪽 출구로 나오라 했다.

그렇게 예술 마을 헤이리에 당도했다. 1번 대문이 나온다. 그리로 들어갔다. 자연과 함께 사는 몇 개의 집들이 나온다. 'Magazine House'라고 쓰여진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다. 이 마을에서 제법 큰 건물이다. 완공된 지 3주 됐다는 이야기를 '잡지의 집' 여자가 말한다. 1층

엔 현재의 정기 간행물들, 2층엔 카페, 3층엔 일제 시대, 해방 공간에서 처음 나온 잡지들이 꽂혀있다. 아직 다 서가가 채워지지 않았다.

거기서 커피 한잔을 하고 밖을 둘러보았다. 유리창을 많이 쓴 건물들이 보인다. 12시가 조금 넘었다. 바로 그 옆에 한길사의 책방, 'Book House'가 있다. 거기서 김언호 사장과 2시 약속이 잡혀 있었다. 그를 만나기 전에 책방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 그리로 갔다.

건물 서쪽으로는 유리창으로 안이 보이고, 출입구는 건물 동쪽으로 나 있었다. 유리창을 보호하기 위한, 아니면 미학적 대조를 이루는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똑같은 간격으로 3층 건물의 위 아래로 내려갔다.

건물에 들어서니 먼저 책들이 나온다. 옆에는 사진 작가의 "바다와 그림자"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책방이다. 책의 서가들이 2층으로, 3층으로 오른다. 층계가 없고, 언덕을 이루며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된다.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기 좋게 만들어졌다. 책들이 쭉 전시되어 있다. 3층에 오르니 카페가 있고 거기서 옥상으로 나가면 다시 자연이 나오는데, 그 뒤로 다른 한 채의 책방을 짓을 계획이라고 말한다. 모두 3만권의 책이 거기 있는데 반은 한길사 책이고, 반은 다른 출판사들이 낸 양서라고 말한다. 양서

는 잘 팔리는 책이 아니라 좋은 책이란 뜻이다. 한길사는 문학 중심의 출판사는 아니지만 소설 “흔불”(최명희)과 “태백산맥”(조정래)으로 유명하다. “한국사”, “함석헌 전집”도 유명하다.

1시 반, 1층 음식점, Foresta에 내려왔다.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정확하게 2시, 그를 만났다. 명함을 건넸더니 미국에서 많은 글을 쓴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시인인줄은 몰랐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가 시골 책방 주인이고 싶었던 유년 시절의 꿈을 공개한다. 아직도 바닷가 어촌의 작은 책방 주인이고자 한다. 파주 출판 단지, 헤이리 예술 마을은 그가 꿈꾸는 세계라고 말한다. 그는 통일동산이 조성되면서 그 안에 헤이리를 두겠다는 꿈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전하면서, 15만평 땅에 들어설 예술인들의 공간을 구상하고, 출판 단지 친구들에게 그의 꿈을 팔고 다녔다. 100명이 모이고, 지금은 370명이 분할된 땅을 샀다. 곧 그 공간이 채워진 것이다.

2000년에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994년 꿈이 2000년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땅값이 싸서 투자 유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유명한 영화 감독 박찬욱, 김기덕 감독도 헤이리 회원이다. 여럿 미술관들이 들어섰고, 소설가 “정한숙 기념관”, 어린이 책방 “동화나라”가 있고, 서예가의 집도 들어서 있다.

건물들의 높이는 3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자연 보전을 최우위에 두고 미학적인 건축으로 예술 마을은 이미 그 특징을 짓고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엔 자연을 그대로 두고, 야생화들이 숨 쉬고 자라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건물들 속으로 자연이 들어와 숨 쉬도록 되어 있다.

건물의 1층은 전시장, 2층은 예술가의 공방, 3층은 예술가의 거처이든가, 레스토랑 아니면 카페가 들어있는 구조가 인상적이다. 예술가가 방문객과 직접 만나서 그의 예술 세계를 전하고,

그가 만든 예술품을 팔고, 좋은 음식을 함께 들도록 구성된 각각의 집이 하나의 우주다. 그러나 건물 전체가 자연 전체와 더불어 예술품이 되는 마을이 헤이리의 꿈이다. 마을이 미술이 되고, 박물관이 되는 그런 꿈을 김 사장은 일단 성취했다. 그는 이 예술 마을의 중심에 책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책방이 이 마을에 가장 큰 건물이고, 책방 안에는 책이 중심에 있다.

예술가들이 자연과 문화 속에서 지성의 대화를 나누는 이상향이 그의 꿈인데, 한 자리에 예술인들이 모여 산다고 해도 고독한 영혼의 그들이 가까이 교류할까? 고독한 영혼끼리 모여 산다고 고독이 해체되고 진정한 마을이 생겨날까? 두고 보아야겠다. 우리들이 모두 외딴 섬 하나가 되어 바다의 폭풍을 맞고 있는데 섬과 섬을 잇는 다리를 놓고 마을을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오늘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변경의 마을이 통일이 된 이 나라의 지성적 중심을 이를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변경이 중심이 되는 생각, 서울로부터 떠나 자연과 인간이 숨 쉬는 곳을 찾아가는 생각이 그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탱크가 들어오면 저지할 장애물들이 어느 새 사라졌고, 남·북한의 관계가 이만큼 개선되었다고 보면 파주는 이미 변경이 아니라 중심에서 있는 것 아닐까?

김언호씨는 스스로 민족주의자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민족을 고향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주의자라고 옹호하고 있었다. 요즘 유행하는 좌파적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세계적 민족주의자가 되기를 바라며 헤이리 마을을 떠나고 있었다. 가을햇살이 눈부시도록 환한 오후였다.

마을 하나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디자인하고 그 속에 자연과 꿈을 넣을 수 있다면 세계가 주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